

# 지역 간 평생교육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차이 분석

## An Analysis on the Regional Differences of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mong Participants in Lifelong Learning

김 형 주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무국장 - 주저자)

김 정 태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부교수 - 교신저자)

### *Abstract*

Hyeongju Kim / Jungtae Kim

This study analyzes regional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lifelong education o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with agricultural and fishing areas as the reference, and aims at expanding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at agricultural and fishing areas and contributing to the nurturing and availability of key manpower who will contribute to local maintenance and development, by suggesting the future direction of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areas through interpreting results of the analysis.

For this,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to analyze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related variables between large cities and small and medium towns, with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areas as the reference value

To consider the results of analysis, policies of support customized to pers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continuous support that can be felt in person by rural inhabitants, support to facilitate understanding about and approach to lifelong educ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programs and inducements to expand social participation, and measures to secure local talents who will contribute to local development and local economy promotion will have to be implemented.

Keywords: Participant in Lifelong Learning,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Regional Differences

## I. 서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접근은 농촌이 처한 상황과 농촌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시대적으로 달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접근이 강했다. 새마을 운동을 필두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등과 아울러 2004년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교통 및 인프라 증대와 농촌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왔다. 이는 농촌지역 인구 증대와 유지에 기여하고 방문객 증대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를 가져왔으나, 사후 활성화 프로그램 미흡과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무관심을 가져온 부정적 효과도 있다(박준규·김민수·김영하, 2017).

이에 따라, 현재는 농촌의 유지와 공동체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 등의 농촌지역 개발사업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주민역량 향상(Malek, J. A., Ahmad, A. R., Awang, M. M. & Alfitri, 2014)을 위한 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우선되고 있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5~2019)」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지방 이양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방향에서는 지방정부와 중간조직, 시민단체,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역량강화와 인식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초기반 마련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평가, 정주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평가, 시정되고 있다. 나아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단순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역량 제고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만족도 향상에 따른 지역 애(愛) 형성, 주민자치 실현, 자아실현 등에 기여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융합하여 사업 초기 단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된 목적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처럼 평생교육 또한 그 목적이 삶의 질 유지와 향상에 있어(Dave. 1973), 이 둘의 융합은 양질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삶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힘 쏟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평생교육이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삶의 질 향상이 평생교육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참여를 지속시킨다하여(고은현·이성, 2014; 김진화·강은이·전하영, 2013; 신소정, 2018; 안은미·허정무, 2015; 한수정, 2016; Field, 2009; Sabates, R., Hammond, C., 2008) 평생교육과 삶의 질 향상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각 부처의 정책현안 발굴과 정책수립 등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과제로 표방하고 정책실현에 옮기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평생교육 분야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성 정책 수립과 집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 2019).

따라서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국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응하여 평생학습 사회로의 전환적 측면에서 평생학습지원이 지역 간에 고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학계에서도 이를 위한 다방면의 연구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생교육 전파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비해 지역적 안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편차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관련 정책 또한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삶의 질에 포함되는 다양한 부분의 복합적 부분을 충당하기보다는 물질, 재정적 방향으로의 치우침이 있다. 현재는 주로 균형적 발전과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평생학습 공급책들을 마련하다 보니, 내생적 불균형까지 해결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Visvaldis, Ainhoa & Ralfs, 2013).

국가사회의 존립과 유지, 발전의 한 부분에서 증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평생학습은 공동체를 재건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권인탁, 2004; 박상옥, 2015; 오혁진, 2006; 유은숙, 2006)은 결국 농어촌지역의 평생학습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은 지역 인구 재건부터 지역 발전 도모, 나아가 국가 발전으로까지 이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고령화, 도시화, 지역인적자원 부족, 교육기회 격차 문제 등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강환실·원성수, 2008), 이를 평생학습 체계와 연결하여 지역 행정 서비스의 주요 영역으로서 지역 경쟁력을 판가름하는데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김영준, 2006), 지역 격차의 근본적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평생교육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여 기존 특성별 시사 내용에 반영하는 것은, 지역 간 균형있는 평생교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인적자원 육성, 자발적이고 성공적인 농촌지역개발과 지역 인구 증대 및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이 가지는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하여 지역 간 차이를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들이 국가에서 삶의 질 측정 목적으로 수집하는 교육 관련 지표가 정규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개인 및 사회와 연관된 지표들은 평생교육 참여자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학습 실태조사는 성인교육의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자료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평생교육 성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공통되고 표준적인 자료로서 그들의 특성을 분류하고 차이를 분석 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이다.

이러한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 내용 중 본 연구에서의 분석과정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자의 범위를 평생교육 형태 중 형식 및 무형식 교육을 제외한 비형식 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활용하였으며, 해당 조사에서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인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세 가지 규모의 분류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삶의 질과 만족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 중 사회인식 부분에 해당하는 생활 만족도와 전반적 삶의 질 향상정도, 구체적 삶의 질 향상(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참여 만족, 경제적 안정감)에 대한 답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수립 및 시행자 차원에서의 농어촌지역 평생교육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생적 균형까지 고려하는 지역 안배의 평생교육 보급을 통해 농어촌지역에서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평생교육과 삶의 질 향상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Dave, 1973), 우리나라 평생교육 관련 국가정책과 지원 역시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에서는 개인의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가 기대될 때, 행위의 가치가 발생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며 지속성이 유지된다고 한다(Eccles, 1983).

평생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게 되어 참여동기가 발생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향상된 삶의 질은 다시 재참여 동기를 유발하여 참여를 지속시키는 과정으로 설명되는 논의들은(신소정, 2018; 안은미·허정무, 2015; 한수정, 2016), 평생교육과 삶의 질에 관한 연계성과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결국, 지역 발전과 혁신을 가져오는 평생교육에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국가 정책과 지원도 이에 상응하고자 하고있는 것이다.

삶의 질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처한 생활환경, 수준, 복지 등에 대한 상황 혹은 만족의 상태나 욕구충족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임희섭, 1996), 그 의미들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김성희·장순희, 2013). 삶의 질을 주관적 웰빙으로 규정하고 삶의 질이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된 것으로서의 욕구에 대한 충족정도로 보고 있는 연구(한준, 2015) 외에도 삶의 질을 행복감, 자존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감소 등으로 논의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고은현·이성, 2014; 최경애, 2013; Field, 2009; Sabates & Hammond, 2008).

평생교육과 삶의 질 관계에 관한 연구들 또한 삶의 질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박상옥(2009)은 평생교육 학습동아리 활동이 삶의 태도 및 가치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았으며, 한상길·조운진(2013)은 프로그램 운영체계, 활동 및 학습지향동기, 기관 환경이 학습성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고, 김진화, 강은이·전하영(2013)은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삶의 열정과 미래를 꿈꾸는 행동 등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접근한다.

또한, 김남선(2001), 박진영(2005)은 평생학습 지원이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고, 유은숙(2006)은 평생교육 참여 후 가장 큰 변화는 전문능력 및 자신감 향상으로 보아 삶의 질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삶의 질 향상이 성과, 결과로서만 작용하지 않고 조절적인 효과를 내고있는 경우의 연구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김형주·김정태, 2019; 박상옥·함은혜·김훈호·이재준, 2018; 전주성·김태중, 2013).

이러한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평생교육 참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통하는 어떠한 삶의 질적 부분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조절변수로 작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평생교육과 삶의 질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는 유기적 관계임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질의 의미와 방향성, 영향력 등에 대해 상이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과 삶의 질의 관계성은 기준에 따라 모호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만족도', '개선정도' 같은 주관적인 지표는 지극히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시대적 상황을 비롯하여 학습자가 속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 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성과 결과를 보이게 된다.

결국, 그 시대와 상황이 반영되는 삶의 질의 개념적 접근은 정책적인 조사지표에 대응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전후부터 근본적인 지표 마련에 힘쓰고 관련 조사를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민 삶 전반에 대한 질을 측정하기 위해 건강, 고용임금,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삶에 대한 만족도), 소득소비자산, 안전, 환경, 여가, 교육, 가족공동체, 주거 등의 11개 영역 71개의 지표를 개편하여 개인과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 전반에 대한 삶의 질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KOSIS, 2019). 그러나 교육부분에서는 주로 정규교육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어 학교교육 외의 부분에도 중점을 두는 평생교육에 대한 효과 검증은 모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교육의 삶의 질 향상 정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 참여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이다. 해당 조사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교육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사회인식 부분에서 중요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질문지에서 사회인식 부분에는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결과에 따른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는 현재 생활만족도,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정도, 삶의 질 향상 도움 정도에 대한 항목이 구분되어 질문하고 있어, 평생교육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해당 수집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2. 지역 간 차이

### 1) 평생교육의 지역 간 차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부터 사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평생교육의 이념 전파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1980년대 평생교육의 이념적 발전과 사회교육 활동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수용하고 이론적 바탕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교육이 학교에서 행하는 정규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으로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기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부정적 요소인 사회적 격차를 더욱 벌려놓게 되었고, 이는 전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평등화라는 평생교육의 중요이념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농어촌주민 또한 주요 소외 계층에 속하게 되었다(이종만 2003).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 중심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농촌에 사회교육의 정착과 발전에 관한 학문적 접근(이종만, 2003)은 물론, 지역혁신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평생교육 방향(김영준, 2006; 오혁진, 2006), 농촌주민 또는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의 인식, 요구도, 참여요인, 참여실태 조사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모델개발 및 방향 탐색(권정숙, 2005; 2012, 김진화·김소현·고영화·김경미, 2009; 마상진·김강호, 2014), 농어촌지역·도시 또는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여 농어촌지역의 평생교육 방향성 탐색(배성의 1995; 김강호·마상진, 2014; 김정태, 2019; 김형주·김정태, 2019) 등 다방면의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농어촌지역의 평생교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 전개는 정책적 접근과 맞물린다.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농어촌지역 균형적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단순 하드웨어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혁신에 기여하는 지역인적자원 육성, 지역 발전을 위한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귀농·귀촌인 등 외부 유입인력 활용, 공동체 활성화, 주민이 주도 내발적 지역개발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전략들이 함께 담겨있다.

특히 2차 기본계획(2010~2014) 수립 당시에는 정책사업간 재조정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김정섭·이규천·박대식, 2010; 박대식·최경환·박주영, 2009)에 따라 접근성, 인구밀도, 사업체 규모, 경제활동 인력, 지자체 재정 여건, 사회자본 등의 6가지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는 농어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 정책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볼 때 농어촌지역개발과 평생교육의 정책적인 유기적 연계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김형주·김정태, 2019). 이는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평생학습 지역화,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역학교 역할 정립과 주도적 참여 및 자생적 교

육 확대 등의 다양한 농어촌지역 평생교육 보급과 관련된 정책 사안과 맞물리면서 농어촌지역 개발에 평생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과 공급의 필요 인식도 커져가고 있다.

이렇듯 평생교육이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농어촌지역에 보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 평생교육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부(2018)의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을 기준으로 한 투자액이 높은 지자체와 낮은 지자체 간에 약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 재정 규모가 큰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평생교육 지원·육성 정도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3.9%가 여가·취미 중심의 유사 강좌들이 제공되고 있어 지역 특성화 및 맞춤형 인적자원 공급 측면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에서 볼 때, 농어촌지역 평생교육은 단순 여가 및 취미 활동의 공급을 넘어서는 농어촌지역개발의 도화선이자 지역사회 유지 및 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보급,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지원 등은 혁신을 이끌어 낼 인적자원 육성과 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평생교육의 특성, 도시지역과의 차이 등을 확인·발굴하고 적용하는 학문적·정책적 접근과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삶의 질의 지역 간 차이

마케팅 개념에서 보면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게 진열되어있는 양질의 상품이 소비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를 거주지 분리의 지리적적 개념에 대응해보면 거주자는 거주지와 근접된 장소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서비스에 따라 정주 또는 이주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농어촌지역 주민은 교통·통신·정보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접근성을 가진 구조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교육, 문화, 복지 등에 대한 서비스 불균형의 지역 격차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는 곧 농어촌 붕괴의 원인인 도시로의 이주,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나타나 취약한 환경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몰락 및 지역사회공동체 해체와 함께 국가경제 및 사회 근간에 위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지금까지 많은 정책과 연구들이 농어촌에 대한 불균형적 서비스를 파악하고 양질의 공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정책적으로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추진 체계가 정립된 것은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이 법 기본이념에서는 농어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어촌주민이 도시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은 농어촌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어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

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7대 정책 부문별 18개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182개의 정책과제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3차 계획은 이전 1, 2차에서의 도농 간 격차 완화와 물리적 정주 환경 정비에 초점을 둔 정책에서 농어촌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삶의 질 정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어촌주민정주만족도 조사와 농어촌서비스기준 조사로 정책 실효성과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농어촌주민정주만족도는 도시와 농어촌주민의 정주만족도를 비교·분석하여 농어촌주민 삶의 질 현 위치와 삶의 질 향상정책 추진 성과 등을 파악하는 목적에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며(유은영·박지숙,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과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해온 조사이다(김광선·정도채·민경찬·유은영, 2016).

삶의 질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 이에 대한 수혜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정의되는데(김성희·장순희, 2013), 정주만족도조사는 농어촌주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주민의 객관적 정주 여건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정도채, 2018).

이를 활용해 다년간의 정주만족도조사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정도채(2018)는 주생활기반, 안전 부문 등 물리적 인프라 관련 주민의 만족도 및 정주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구 감소에 따라 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지리적 불리함으로 인해 여전히 농어촌지역의 필수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환경은 열악하며, 이와 관련한 농어촌주민의 만족도 또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농어촌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집중 투자,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삶의 질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은 결국 주관적 인지에 대한 객관적 생활 여건 차이를 도농 간 또는 지역 간 등의 거주지역 차이로 접근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들은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및 결과변수를 분석하고 있다.

김성희·장순희(2013)는 도·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에 관한 조사를 통해 도시와 농촌지역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삶의 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 김재홍·이은우·이재기(1997)는 서울, 기타도시, 농촌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농림어업자 등 직업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가 낮아 농촌과 도시와 지역 간 삶의 질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균형발전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차이가 소득과 삶의 질에 미치는 동태적 변화패턴을 분석하거나(임채홍·김정렬, 2013), 특정 계층(결혼이주여성)의 특정 부분(건강)에 대한 삶의 질을 도농 간 비교한 연구(윤기찬·장한나·문신용, 2016), 지역 간 삶의 질 차이와 인구이동과의 관계 연구(이은우, 1998),



지역별 삶의 질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혁진, 2015), 지역 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송건섭, 2007) 등 지역 간 차이를 주요 이슈로 하여 삶의 질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학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주요 실천방안으로 주목되는 평생교육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다른 규모의 지역과 비교하여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상향하여 궁극적으로 삶에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정책을 실현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LEDI(Lifelong Education Development Indicators)체계(한승희·조대연·최지희·양은아·공보람·정지연, 2007)와 Eurostat AES(Adult Education Survey) 매뉴얼에 바탕을 두고 설계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과 보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전국단위로 조사가 이뤄져 오는 것으로 국가승인을 받은 국내 유일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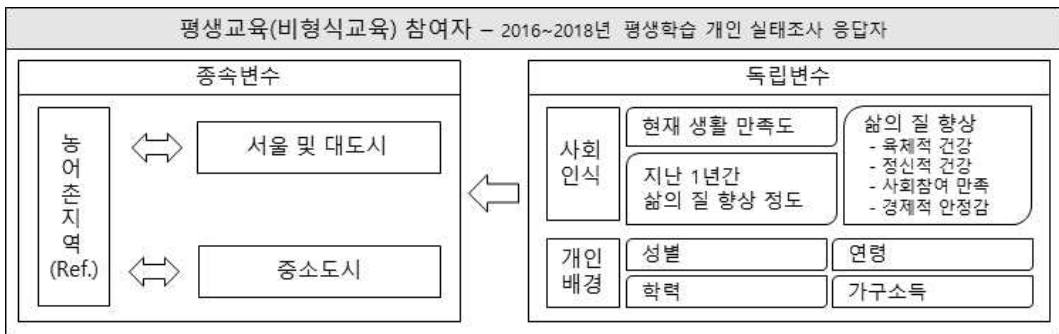
원자료의 응답자 수는 2016년 10,680명, 2017년 11,424명, 2018년 11,178명이나, 이 중 초·중·고·대학교(원) 등의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는 '형식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자기계발 형식인 '무형식 교육'을 제외하고 주로 직장이나 평생학습기관, 원격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형식 교육' 참여자를 추출하여 평생교육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를 위해 문항에서 '지난 1년간 비형식 교육에 참여여부'에 '있음'으로 응답한 답변만을 추출해 활용하였으며, 각 변수별로 표기되지 않은 응답 등을 포함하는 대상자를 제거하는 자료선별과정을 거쳤다.

#### 2.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 실태조사 문항 중 '지역'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평생학습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는 '사회인식' 항목과 특정 계층의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한 방안 강구를 위한 ‘개인특성’ 항목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조사지에는 ‘지역’은 서울 및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독립변수인 사회인식 부분은 현재 생활 기준의 만족수준을 나타내는 생활만족도, 평생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지난 1년 간 삶의 질 향상정도 및 이를 구체화한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참여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등의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10점 또는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지역에 따른 계층 접근 방향설정에 용이한 개인적 특성은 계량적 연구에서 주요 항목으로 살피는 성별, 연령, 학력, 월 가구소득 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1〉 연구분석의 틀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응답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 지역에 따른 위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역을 구분하는 명목척도로 설정하였으며, 응답자들의 경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고정된 두 확률의 비율로 회귀식을 구성하는 다항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지역 간 관계를 고려하면 서열다항로짓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선택범주 1에 비해 2를 선택할 확률이 2에 비해 3을 선택할 확률과 동일하다는 가정은 지역 간 성향 차이가 일정하다는 전제가 되어 연구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이에 비해 명목다항로짓은 설명변수들이 선택범주와 관련 없이 일정하나 모형 계수는 선택범주에 따라 변화됨을 가정한다(Gujarati, 강달원 등 역, 2013). 이는 대안 간 독립성 가정에 기초하는데, 선택확률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은 선택 응답에 대한 응답자 경향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의미한다.

다항로짓모형은 응답변수가 다항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므로 이항선택 상황연장선상에서 다항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 2005), 종속변수 범주가 3개 이상인 다항선택항을 이항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i_{ij} = \frac{e^{\alpha_j + \beta_j X_i}}{\sum_{j=1}^4 e^{\alpha_j + \beta_j X_i}}$$

여기서  $j$ 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으로, 농어촌지역=1, 서울 및 대도시=2, 중소도시=3의 범주로 구분된다.  $X$ 는 회귀모형을 설명하는 벡터가 되고,  $\beta$ 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각 지역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벡터로,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및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지역을 기준값으로 한다. 따라서 농어촌지역=1로 설정하고 있으며, 분석된 값은  $\pi_{i, \text{농어촌지역}}$ 를 기준에 대한  $k=2$ (서울 및 대도시),  $k=3$ (중소도시)의 odds 비율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odds 비율은 기준 선택범주인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선택범주  $k$ 가 얼마나 더 선택되는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변수별 추정된 값의 한계효과는 이성우 등(2005)이 제시하는  $\exp(\beta)$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ln\left(\frac{\pi_{ik}}{\pi_{i1}}\right) = \alpha_k + \beta_k X_i$$

한편, 다변량분석에서 신뢰성있는 분석을 위한 표본 크기는 종속변수 최소 집단을 기준으로 독립변수 수의 10배가 되어야 하며, 최소 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Hulley, S. B., Cummings, S. R., Browner, W. S., Grady, D. G., & Newman, T. B., 2007). 본 연구에서 연도별 종속변수 최소치는 농어촌지역으로 개인적 배경을 포함한 독립변수 수의 기준치를 넘어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IV. 연구결과

연구결과에서는 2016~2018년 평생학습 실태조사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은 <표 1>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삶의 질에 영역인 사회인식 부분과 개인적 배경의 지역 간 차이는 <표 2>의 다항로짓분석결과에서 한계효과 및 유의수준의 결과값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별 분석대상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총응답자는 3,349명으로 서울 및 대도시가 1,538명, 중소도시가 1,354명, 농어촌지역이 457명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서울 및

대도시가 1,641명, 중소도시가 1,278명, 농어촌지역이 609명으로 총 3,528명, 2018년에는 서울 및 대도시가 2,085명, 중소도시가 1,703명, 농어촌지역이 741명으로 총 4,529명의 응답자로 나타나, 2016~2018년까지 전체 연도에 걸쳐 서울 및 대도시가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이 지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연도별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 연령은 전반적으로 연도별 25~65세까지 비교적 고르게 참여하고 있으나 고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학력은 대체적으로 대졸 이상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생교육에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다는 기존의 조사자료와 동일하다(교육부·한국교원개발원, 2015). 한편 소득을 보았을 때,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사람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은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과반수 가까운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어 소득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2016		2017		2018	
종속 변수	구분		빈도		빈도		빈도	
	지역	서울 및 대도시	1,538		1,641		2,085	
		중소도시	1,354		1,278		1,703	
		농어촌(Ref.)	457		609		741	
독립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재 생활만족도		7.081	1.349	7.169	1.463	7.109	1.291
	삶의 질 향상정도(1년간)		3.401	0.682	3.390	0.714	3.398	0.672
	삶의 질 향상	정신적 건강	3.896	0.681	3.981	0.685	3.870	0.669
		육체적 건강	3.772	0.830	3.869	0.800	3.816	0.773
		사회참여 만족도	3.767	0.761	3.773	0.762	3.777	0.713
		경제적 안정감	3.349	0.815	3.346	0.886	3.351	0.799
	구분		빈도	백분률	빈도	백분률	빈도	백분률
	성별	남성	1,474	44.01	1,597	45.27	2,087	46.08
		여성(Ref.)	1,875	55.99	1,931	54.73	2,442	53.92
	연령	25~34세	857	25.59	768	21.77	999	22.06
		35~44세	907	27.08	801	22.70	993	21.93
		45~54세	853	25.47	786	22.28	1,061	23.43
		55~64세	732	21.86	661	18.74	834	18.41
		65 ~ 79세(Ref.)	-	-	512	14.51	642	14.18
	학력	중졸이하	251	7.49	578	16.38	627	13.84
		고졸이하	1,151	34.37	1,110	31.46	1,491	32.92
		대졸이상(Ref.)	1,947	58.14	1,840	52.15	2,411	53.23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92	2.75	255	7.23	237	5.23
		150~300만원 미만	638	19.05	509	14.43	568	12.54
300~500만원 미만		1,477	44.10	1,486	42.12	1,590	35.11	
500만원 이상(Ref.)		1,142	34.10	1,278	36.22	2,134	47.12	
전체		3,349	100.00	3,528	100.00	4,529	100.00	

10점 척도의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된 현재 생활만족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연도별로 7점대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지난 1년간의 삶의 질 향상정도 역시 약 3.4점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평생교육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정도를 알아보는 항목과 관련하여 리커트형 5점척도를 통해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참여 만족도, 경제적 안정감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도움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동일하게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3.8 점대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안정감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3.3점대로 가장 낮은 점수대를 보였다. 이는 평생교육 학습자들이 자발적 학습동기로 자유로운 입·퇴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최인옥, 2014) 근본적인 자기계발 및 자아성취효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결과로 판단된다.

## 2. 현재 생활만족도에 대한 지역 간 차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각 지역에서 조사 시점의 생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2017년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대도시와 농어촌 범주, 중소도시와 농어촌 범주 모두의 추정값이 유의수준 1% 내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각각 84.4%( $\beta=-0.170$ ,  $p<0.0001$ ), 86.3%( $\beta=-0.147$ ,  $p=0.001$ )로 나타나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농어촌지역 평생교육 참여자가 높은 생활만족 수준을 보였다. 또한, 2018년 중소도시와 농어촌 범주에서 추정값이 유의수준 5% 내의 결과를 보이고 한계효과가 91.5%( $\beta=-0.089$ ,  $p=0.028$ )로 나타나 농어촌이 높은 생활만족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2016년, 2018년에도 각각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한계효과가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90%대, 80%대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의 평생교육 참여자가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 만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 공급과 내용 등의 양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보다 도시지역 학습자가 추구하는 만족수준과 농어촌지역 학습자가 추구하는 만족수준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 결과로 해석된다. 해당 질문은 평생교육과 연계된 만족수준이라기 보다는 교육으로 인한 질적 향상의 현재 기준을 살펴보기 위한 학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의 생활만족 수준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인프라, 문화, 복지, 서비스 공급 등의 여러 변수 간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함께 고려되어 다양한 원인을 밝히는 추가적인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3. 지난 1년 간 삶의 질 향상정도에 대한 지역 간 차이

평생학습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2016년도와 2017년에는 서울 및 대도시와 농어촌 범주, 중소도시와 농어촌 범주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범주에서의 추정값이 유의수준 5% 내의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계효과는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중소도시가 1.18배( $\beta=0.089$ ,  $p=0.028$ )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6~2018년까지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 및 대도시와 중소도시와의 삶의 질 향상정도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농어촌지역 범주가 높은 한계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하면 반대된 결과이다.

유의한 결과와 관계없이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정도가 높은 것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학습센터 운영, 학습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평생학습 보급과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평준화되면서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평생학습 효과가 적용된 부분이기도 하며,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어촌지역 평생교육 참여자가 서울 및 대도시 수준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단계적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비교적 수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소도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삶의 질 향상 체감효과를 먼저 가져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4. 평생교육 참여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도움정도의 지역 간 차이

##### 1) 정신적 건강

2016~2018년 지역 간 평생교육 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질 향상 중 정신적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에 관한 질문에, 전체 연도에서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모두의 범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2016년과 2017년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한 한계효과를 살펴볼 때, 서울 및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80~90% 수준으로 농어촌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한 한계효과가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각각 1.06배, 1.05배로 높게 나타나 농어촌지역의 평생교육이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의수준 범위가 아닌 오차범위 내의 결과지만 전반적 패턴으로 보았을 때,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가 평생교육을 통해 점차적으로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받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생계를 위한 직업 관련 교육이나 전문 교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었던 상황과 비교하여 현재는 삶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과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비교적 관련 프로그램의 보급이 풍부하고 신매체 등에 대한 접근성과 선호도가 높은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에서(김정태, 2019, 김형주·김정태, 2019) 빠르게 전파된 결과로 보이며, 농어촌의 경우 여전히 직업능력 향상에 치중된 전문화 교육 또는, 교육부(2018)의 지자체 평생

교육 보급과 관련된 분석 자료처럼 여가, 문화, 취미와 관련된 평생교육 한정된 프로그램이 지역 단위에서 다수 보급되어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지역 학습자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2) 육체적 건강

연도별로 지역 간 평생교육 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질 향상 중 육체적 건강에 도움을 어느 정도 주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2016년과 2018년에 농어촌지역과 서울 및 대도시범주에서 각각 유의수준 5%, 1% 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서울 및 대도시 지역이 2016년 1.23배( $\beta=0.204$ ,  $p=0.024$ ), 2018년 1.30배( $\beta=0.260$ ,  $p=0.001$ )로 나타나,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농어촌지역 평생교육 참여자가 서울 및 대도시지역에 비해 육체적 건강에 대한 낮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2017년의 중소도시 범주와의 비교를 제외한 전체 범주에서 농어촌지역의 육체적 건강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일정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 거점 평생학습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정도 수준에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 고령화된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강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평생교육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희망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부족과 함께 보수성이 강한 농촌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개인학습 지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 또한(김형주, 2019) 육체적 건강에 대한 도움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 3) 사회참여 만족

연도별로 지역 간 평생교육 참여로 인한 사회참여 만족수준을 조사해 본 결과, 2018년 중소도시와의 비교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농어촌지역이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높은 사회참여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서울 및 대도시와 농어촌 범주, 중소도시와 농어촌 범주에서 각각 추정값이 유의수준 5%, 1% 범위 내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각각 78.9%( $\beta=-0.237$ ,  $p=0.017$ ), 75.5%( $\beta=-0.281$ ,  $p=0.005$ )로 나타나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범주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농어촌지역의 평생교육 참여자가 높은 사회참여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7년도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범주에서 모두 추정값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계효과는 각각 54.7%( $\beta=-0.604$ ,  $p<0.0001$ ), 63.4%( $\beta=-0.456$ ,  $p<0.0001$ )로 나타나 2016년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 및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 추정값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계효과는 농어촌지역 대비 서울 및 대도시가 82.1%( $\beta=-0.197$ ,  $p=0.017$ )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농어촌지역 학습자들이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와 같은 타인을 돕기 위한 자세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낮았던 데서(김정태, 2019)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점차적으로 사회 참여를 경험한 농어촌지역 평생교육 학습자들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간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평생교육과 지역개발 연계 차원에서 그동안 시도해온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로 보이며 농어촌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을 확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과 보상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2017년에는 농어촌지역이 서울 및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사회참여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데 관해서는 해당 시기 전후 상황과 처해있는 환경을 사회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대응해보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여 적용해보는 시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경제적 안정감

연도별로 평생교육 참여로 인한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준 정도에 대하여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2016년은 서울 및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 추정값이 5% 내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85.5%( $\beta=-0.192$ ,  $p=0.016$ )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농어촌지역이 서울 및 대도시에 비해 경제적 안정감에 대한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서울 및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는 추정값이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효과가 1.37배( $\beta=0.318$ ,  $p<0.0001$ )였다. 즉, 농어촌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해 평생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감의 도움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2016년 서울 및 대도시와의 비교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8년에는 농어촌지역과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적 안정감은 개인이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유지 정도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직업 전문화 및 기술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경제적 안정감에 대한 도움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단순 여가, 문화, 취미 활동이 아닌 전문 교육 거점장소로서의 중소도시와의 비교에서는 농어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2018년에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농어촌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적 안정감 도움정도를 보이는데, 이는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이 농어촌지역까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삶과 여가 등에 대한 경쟁적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심리가 농어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 5. 개인적 배경의 지역 간 차이

첫째, 여성 대비 남성의 평생교육 참여 수준은 2016년 서울 및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 한계효과가 73.9%( $\beta=-0.303$ ,  $p=0.009$ )로 유의수준 1% 이내, 2017년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 한계효과가 83.4%( $\beta=-0.181$ ,  $p=0.099$ )로 유의수준 10% 이내, 2018년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 전체에서 한계효과가 각각 62.6%( $\beta=-0.469$ ,  $p<0.0001$ ), 74.3%( $\beta=-0.297$ ,  $p=0.002$ )로 유의수준 1% 이내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전반적으로 농어촌지역 평생교육에 남성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이 미약한 상황에서 주로 직업 관련 교육 등이 남성의 참여 비율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령별 참여 수준은 2016년 55~64세가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 추정값이 1% 이내의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각각 18.6%( $\beta=-1.683$ ,  $p<0.0001$ ), 36.2%( $\beta=-1.017$ ,  $p<0.0001$ )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의 참여 수준이 높았다. 또한, 2017년에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 65~79세 대비 25~34세의 추정값이 5% 범위 내의 유의한 값을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1.68배( $\beta=0.519$ ,  $p=0.028$ )로 나타났고, 2018년에도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 25~34세는 한계효과가 1.93배( $\beta=-0.656$ ,  $p=0.002$ ), 35~34세는 1.46배( $\beta=0.379$ ,  $p=0.056$ )로 각각 유의수준 1%, 10% 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나 중소도시 지역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는 45~54세의 한계효과가 71%( $\beta=-0.341$ ,  $p=0.056$ ), 55~65세가 65.6%( $\beta=-0.422$ ,  $p=0.007$ )로 각각 10%, 1% 이내의 유의수준을 보이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패턴 차이를 정리하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45세 이상의 연령대가 참여 수준이 높은 반면에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 44세 이하의 연령대가 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학력은 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2016년 서울 및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 중졸 이하 및 고졸 이하 모두의 추정값이 1% 내의 유의수준을 가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각각 53.8%( $\beta=-0.620$ ,  $p<0.0001$ ), 22.1%( $\beta=-1.509$ ,  $p<0.0001$ )였다. 또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도 중졸 이하 및 고졸 이하에서 각각 추정값이 5%, 1%의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각각 74.0%( $\beta=-0.301$ ,  $p=0.025$ ), 47.2%( $\beta=-0.750$ ,  $p<0.0001$ )로 나타났다.

2017년 서울 및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 중졸 이하 추정값이 1% 내의 유의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한계효과는 25.1%( $\beta=-1.383$ ,  $p<0.0001$ )이었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 또한 중졸 이하가 추정값이 1% 이내의 유의수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한계효과는 26.2%( $\beta=-1.338$ ,  $p<0.0001$ )로 나타났다. 2018년 서울 및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 중졸 이하 및 고졸 이하 추정값에 대한 유의수준은 각각 1%, 10% 내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27.2%( $\beta=-1.301$ ,  $p<0.0001$ ), 79.1%( $\beta=-0.235$ ,  $p=0.053$ )였다. 또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는 중졸 이하의 추정값이 1% 내의 유의수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42.8%( $\beta=-0.849$ ,  $p<0.0001$ )로 나타났다.

이상의 유의미한 결과를 비롯하여 학력에 대한 모든 지역 범주의 전체 패턴을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이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고졸 이하의 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와 상반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은 500만원 이상의 월 소득을 가진 가구를 기준으로 2016년 서울 및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 모든 소득범위에서 추정값이 1% 이내의 유의수준을 가져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150만원 미만 33.8%( $\beta=-1.085$ ,  $p<0.0001$ ), 150~300만원 미만 52.0%( $\beta=-0.635$ ,  $p<0.0001$ ), 300~500만원 미만 53.0%( $\beta=-0.634$ ,  $p<0.0001$ )로 나타나 농어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 소득범위에서 서울 및 대도시가 낮은 참여 수준을 보였다. 또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 150만원 미만 소득자의 추정값이 1%의 유의수준 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49.6%( $\beta=-0.702$ ,  $p<0.0001$ )로 나타났다.

2017년 서울 및 대도시와 농어촌 범주 또한 모든 소득범위에서 추정값이 유의수준 1% 이내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계효과는 150만원 미만 20.2%( $\beta=-1.600$ ,  $p<0.0001$ ), 150~300만원 미만 30.8%( $\beta=-1.178$ ,  $p<0.0001$ ), 300~500만원 미만 52.0%( $\beta=-0.653$ ,  $p<0.0001$ )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 소득범위에서 서울 및 대도시가 낮은 참여 수준을 보였다. 또한, 중소도시와 농어촌 범주에서도 모든 소득범위에서 추정값이 1% 내의 유의수준을 나타냈으며, 한계효과가 150만원 미만 55.5%( $\beta=-0.588$ ,  $p=0.007$ ), 150~300만원 미만 43.8%( $\beta=-0.825$ ,  $p<0.0001$ ), 300~500만원 미만 68.3%( $\beta=-0.381$ ,  $p=0.004$ )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 소득범위에서 중소도시가 낮은 참여 수준을 보였다.

2018년 서울 및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지역 범주에서는 150~300만원 미만과 300~500만원 미만의 소득범위에서 추정값이 1% 내의 유의수준을 가지는 차이를 보였다. 한계효과는 150~300만원 미만 28.9%( $\beta=-1.240$ ,  $p<0.0001$ ), 300~500만원 미만 51.1%( $\beta=-0.671$ ,  $p<0.0001$ )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 소득범위에서 서울 및 대도시가 낮은 참여 수준을 보였다. 또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범주에서도 모든 소득범위에서 추정값이 1% 내의 유의수준을 가지는 차이를 보이며 한계효과가 150만원 미만 27.4%( $\beta=-1.294$ ,  $p<0.0001$ ), 150~300만원 미만 32.9%( $\beta=-1.113$ ,  $p<0.0001$ ), 300~500만원 미만 57.4%( $\beta=-0.555$ ,  $p<0.0001$ )로 나타나 전체 소득범위에서 중소도시가 낮은 참여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유의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연도에서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범주에서 농어촌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의 월 소득을 가진 가구, 즉 고소득자에 대비하여 적은 월 소득을 가진 가구가 상당히 낮은 참여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지역 간 차이 분석결과

연도	변수		서울 및 대도시/농어촌지역				중소도시/농어촌지역					
			Estimate	exp( $\beta$ )	표준오차	Pr) ChiSq	Estimate	exp( $\beta$ )	표준오차	Pr) ChiSq		
2016	현재 생활만족도		-0.053	0.948	0.049	0.276	-0.031	0.969	0.048	0.520		
	1년간 삶의 질 향상정도		0.055	1.057	0.097	0.568	-0.091	0.913	0.097	0.349		
	삶의 질 향상	정신적 건강	-0.046	0.955	0.115	0.690	-0.180	0.835	0.115	0.117		
		육체적 건강	0.204	1.226	0.090	0.024	**	0.053	1.054	0.090	0.560	
		사회참여만족	-0.237	0.789	0.099	0.017	**	-0.281	0.755	0.100	0.005	***
		경제적 안정	-0.192	0.825	0.080	0.016	**	0.038	1.039	0.081	0.641	
	성별	남성	-0.303	0.739	0.116	0.009	***	-0.107	0.899	0.116	0.353	
	연령	25~34세	0.349	1.418	0.190	0.066	*	0.265	1.303	0.192	0.167	
		35~44세	-0.038	0.963	0.176	0.830		0.136	1.146	0.176	0.440	
		45~54세	-0.181	0.834	0.162	0.265		-0.005	0.995	0.161	0.973	
		55~65세	-1.683	0.186	0.224	<.0001	***	-1.017	0.362	0.212	<.0001	***
	학력	중졸 이하	-0.620	0.538	0.135	<.0001	***	-0.301	0.740	0.135	0.025	**
		고졸 이하	-1.509	0.221	0.321	<.0001	***	-0.750	0.472	0.291	0.010	***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1.085	0.338	0.162	<.0001	***	-0.702	0.496	0.163	<.0001	***
		150~300만원 미만	-0.653	0.520	0.140	<.0001	***	-0.231	0.794	0.142	0.104	
		300~500만원 미만	-0.634	0.530	0.140	<.0001	***	-0.216	0.806	0.142	0.127	
2017	현재 생활만족도		-0.170	0.844	0.041	<.0001	***	-0.147	0.863	0.042	0.001	***
	1년간 삶의 질 향상정도		-0.020	0.980	0.086	0.818		-0.122	0.885	0.088	0.168	
	삶의 질 향상	정신적 건강	0.000	1.000	0.097	0.999		-0.049	0.952	0.100	0.624	
		육체적 건강	0.126	1.134	0.083	0.129		-0.047	0.954	0.085	0.582	
		사회참여만족	-0.604	0.547	0.091	<.0001	***	-0.456	0.634	0.095	<.0001	***
		경제적 안정	-0.036	0.965	0.064	0.578		0.318	1.374	0.068	<.0001	***
	성별	남성	-0.167	0.846	0.107	0.119		-0.181	0.834	0.110	0.099	*
	연령	25~34세	0.177	1.194	0.228	0.437		0.519	1.680	0.237	0.028	**
		35~44세	-0.177	0.838	0.216	0.411		0.230	1.259	0.225	0.306	
		45~54세	-0.222	0.801	0.204	0.278		0.307	1.359	0.213	0.150	
		55~65세	-0.105	0.900	0.175	0.549		0.199	1.220	0.184	0.281	
	학력	중졸 이하	-1.383	0.251	0.195	<.0001	***	-1.338	0.262	0.202	<.0001	***
		고졸 이하	-0.139	0.870	0.136	0.306		-0.181	0.834	0.139	0.192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1.600	0.202	0.221	<.0001	***	-0.588	0.555	0.217	0.007	***
		150~300만원 미만	-1.178	0.308	0.163	<.0001	***	-0.825	0.438	0.169	<.0001	***
		300~500만원 미만	-0.653	0.520	0.129	<.0001	***	-0.381	0.683	0.133	0.004	***
2018	현재 생활만족도		-0.034	0.967	0.040	0.397		-0.089	0.915	0.041	0.028	**
	1년간 삶의 질 향상정도		-0.056	0.946	0.078	0.473		0.163	1.177	0.080	0.042	**
	삶의 질 향상	정신적 건강	0.060	1.062	0.092	0.512		0.048	1.049	0.094	0.606	
		육체적 건강	0.260	1.297	0.081	0.001	***	0.128	1.137	0.082	0.117	
		사회참여만족	-0.197	0.821	0.083	0.017	**	-0.144	0.866	0.084	0.089	
		경제적 안정	-0.074	0.929	0.065	0.256		-0.093	0.911	0.066	0.161	

성별	남성	-0.469	0.626	0.096	<.0001	***	-0.297	0.743	0.097	0.002	***
연령	25~34세	0.072	1.075	0.203	0.722		0.656	1.927	0.210	0.002	***
	35~44세	-0.249	0.780	0.192	0.196		0.379	1.461	0.198	0.056	*
	45~54세	-0.341	0.711	0.179	0.056	*	0.180	1.197	0.185	0.329	
	55~65세	-0.422	0.656	0.157	0.007	***	-0.106	0.899	0.163	0.516	
학력	중졸 이하	-1.301	0.272	0.182	<.0001	***	-0.849	0.428	0.188	<.0001	***
	고졸 이하	-0.235	0.791	0.122	0.053	*	0.071	1.074	0.123	0.563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1.903	0.149	0.212	<.0001		-1.294	0.274	0.208	<.0001	***
	150~300만원 미만	-1.240	0.289	0.143	<.0001	***	-1.113	0.329	0.147	<.0001	***
	300~500만원 미만	-0.671	0.511	0.111	<.0001	***	-0.555	0.574	0.113	<.0001	***

\*\*\*  $p < 0.01$ , \*\*  $p < 0.05$ , \*  $p < 0.1$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평생학습 실태조사 원자료를 기반으로 평생교육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한 지역 간 차이를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로 각 지역에서의 현재 생활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농어촌지역 평생교육 참여자가 높은 만족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학습자가 추구하는 만족수준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 결과로 보이며 현재 기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결과이다.

둘째, 1년간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정도에 대한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2018년 중소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범주에서 농어촌지역이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지역 평생교육 지원과 홍보를 통해 보급과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적용된 것으로, 농어촌에서의 동일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효과를 가져온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박혜영, 2009). 2018년 중소도시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단계적 지원에서 비교적 우선적 수용이 용이한 중소도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삶의 질 향상 체감효과를 먼저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 참여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도움정도 중 정신적 건강 도움정도에 대해 연도별로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모든 범주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패턴에서 서울 및 대도시, 중소도시가 평생교육을 통해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받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삶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교적 보급이 풍부하고 신매체 등에 대한 접근과 선호도가 높은 도시지

역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결과와 함께, 농어촌지역 학습자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평생교육 참여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도움정도에 대해 육체적 건강 도움정도를 연도별로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2016년에서 2018년에 농어촌지역 평생교육 참여자가 육체적 건강에 대한 낮은 만족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2017년의 중소도시와의 비교를 제외한 전체 부분에서 농어촌지역의 육체적 건강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부족(김남선·안현숙, 2007; 김진화·고영화·김소현, 2009; 마상진·김강호, 2014), 희망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부족과 함께 보수성이 강한 농촌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개인학습 지향이 높게 나타나는(김형주, 2019)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넷째, 평생교육 참여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중 사회적 만족에 도움정도를 연도별로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2018년 중소도시와의 비교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농어촌지역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의 농어촌지역 학습자들이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와 같은 타인을 돕기 위한 자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김정태, 2019)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사회참여를 경험한 농어촌지역 평생교육 학습자들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간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평생교육 참여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중 경제적 안정감에 도움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2016년 농어촌지역이 서울 및 대도시에 비해 경제적 안정감에 대한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은 농어촌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해 평생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감 도움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반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문화 및 기술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이 경제적 안정감에 대한 도움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거점 역할을 하는 중소도시와의 비교에서는 농어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안정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여섯째,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배경에 대한 연도별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농어촌지역 평생교육에 남성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45세 이상의 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력은 전반적인 패턴에서 고졸 이하의 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소득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연도에서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높은 참여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 2. 결론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의 평생교육 지원 방향을 제시하여 농어촌지역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인력 양성과 활용성 증대를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상황의 생활만족 수준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 인프라, 문화, 복지, 서비스 공급 등의 여러 변수 간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함께 고려되는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현재 생활 만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평생교육 관련 현 정책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농촌 3·6·5 생활권 관련 지역거점사업 등에 대한 배후마을 지원 정책 등에 보다 중점적인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거점에 집중하더라도 배후의 농어촌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는 추가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도움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삶의 질적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매체를 보급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삶의 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 방식에 대한 용이함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인 질적 동반 향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현재 지자체 등에서 평생교육을 사회참여로 연계하는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학습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평생교육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지역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얻는 다양한 유인책과 보상을 마련하여 자발적 참여로 연계되는 기반을 다져 줄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어촌지역의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안정감에 대한 도움을 평생교육을 통해 유지하고 향상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통해 향상된 삶의 질이 가져오는 지역발전과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농어촌지역 주민을 인지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련 교육과 전파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인적자원 확보 효과와 활용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시 참여로 이어진다(신소정, 2018; 안은미·허정무, 2015; 한수정, 2016). 분석결과는 농어촌지역의 평생교육에 여성 참여를 높이거나, 상대적으로 저연령층, 고학력자, 저소득자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처럼 개인 특성 분석과 비교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맞춤형으로 마련 할 수 있고, 이는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여 지역 발전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은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유지는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인적자원 확보 지대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평생교육 보급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농어촌주민들이 일상적인 학습생활화로 새로

운 지식을 접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마상진·김강호, 2014). 농어촌지역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도적인 핵심인력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농어촌지역에 대한 평생교육의 원활한 보급과 수용은 바람직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역주민이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체감하는 평생교육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주목하여 맞춤형 인프라를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이 삶의 질 향상에 주는 효과에 대한 지역 간 차이를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분석하여 농어촌 평생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문제인식 및 주도적 학습과 공동체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양성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농어촌이라도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규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지역별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평생교육의 삶의 질 차이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규모 차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특성화 및 다양화, 교수법 등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환실·원성수(2008).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공주시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0(2): 47-68.
- 고은현·이성. (2014). 성인의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과 행복요인의 관계 분석. 「교육방법연구」, 26(4): 851-870.
- 교육부. (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 \_\_\_\_\_. (2017).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 권인탁. (2004).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 「교육학연구」, 42(2): 185-215.
- 권정숙. (2005). 농촌여성의 평생학습 인식 및 요구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1(2): 205-224.
- \_\_\_\_\_. (2012).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학습 방향탐색. 「교육연구논총」, 33: 149-72.
- 김강호·마상진. (2014). 도농 간 비형식학습 참여격차 요인분해. 「평생교육학연구」, 20(3): 85-108.
- 김광선·정도채·민경찬·유은영. (2016).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남선. (2001). 사회교육기관별 학습자 삶의 질 영향분석-대구, 경북을 중심. 「평생교육학연구」, 7(1): 115-144.

- 김남선·안현숙. (2007). 평생학습도시 유형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3(1): 25-49.
- 김성희·장순희. (2013). 도·농간 삶의 질 인식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13: 88-102.
- 김영준. (2006). 지역혁신을 위한 평생학습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교육」, 33(1): 199-220.
- 김정섭·이규천·박대식. (2010). 「농어촌 영향 관리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방안」, 세종: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태. (2019). 농촌지역 평생교육 참여자의 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6(1): 1-15.
- 김재홍·이은우·이재기. (1997). 개별가구 자료에 의한 지역간 삶의 질 차이 분석. 「경제학논집」, 6(2): 223-250.
- 김진화·강은이·전하영. (2013). 「경기도 행복학습관 발전방안」, 경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김진화·고영화·김소현. (2009).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사업의 학습자 만족도 가중치 부여 평가방식의 유효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4): 103-129.
- 김진화·김소현·고영화·김경미. (2009).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실태분석과 운영모델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4): 63-91.
- 김형주·김정태. (2019). 농어촌지역 직장인의 평생교육 참여특성: 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5(2): 1-28.
- 마상진·김강호. (2014). 농촌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결정 요인 분석. 「농촌경제」, 37(3): 101-124.
- 박대식·최경환·박주영. (2009).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상옥. (2009). 지역사회 실천조직으로서 학습동아리에서의 학습과정. 「평생교육학연구」, 15(1): 225-259.
- \_\_\_\_\_. (2015). 학습동아리 활성화도가 지역공체의식과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 「평생학습사회」, 1(3): 195-220.
- 박상옥·함은혜·김훈호·이재준. (2018).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3): 65-87.
- 박혜영. (2009). DEA분석을 이용한 평생학습도시 교육사업의 효율성 비교평가. 「평생교육학연구」, 15(2): 1-28.
- 박준규·김민수·김영하. (200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23(4): 75-90.
- 박진영. (2005). 방송통신대학생들의 교육참여 관련 변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1(1): 43-67.
- 송건섭. (2007).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1(3): 35-52.
- 신소정. (2018). 평생교육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노년준비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



- 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1): 707-715.
- 안은미·허정무. (2015). 중년여성의 평생학습 참여가 주관적인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노년 교육연구」, 1(1): 91-111.
- 오혁진. (2006).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고찰. 「평생교육학연구」, 12(1): 53-80.
- 유은숙. (2006). 「평생학습동아리 참여활동과 지속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유은영·박지숙. (2017).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민족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기찬·장한나·문신용. (2016).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QOL) 도농간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42(2): 343-367.
-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서울: 박영사.
- 이은우. (1998). 지역간 삶의 질 차이와 인구이동과의 관계. 「경제학논집」, 7(2): 223-250.
- 이종만. (2003). 농촌사회교육의 발전 방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5(1): 63-71.
- 이혁진. (2015). 「지역별 삶의 질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임채홍·김정렬. (2013). 거주지역간 차이가 소득과 삶의 질에 미치는 동태적 변화패턴 분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 205-247.
-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 전주성·김태중. (2013). 중·노년 여성의 삶 만족과 우울정서 간의 관계에서 평생교육 참여만족의 조절효과 분석. 「역량개발학습연구」, 8(2): 55-71.
- 정도채·민경찬·박지숙. (2017).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애. (2013). 「노인정보화교육의 참여동기, 지속동기, 학습지속유형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34(1): 65-90.
- 한상길·조윤진. (2013). 지자체 여성회관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영향 요인 탐색.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6(3): 85-109.
- 한수정. (2016). 학력, 학습태도, 비형식 평생교육 참여가 성인학습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2): 379-394.
- 한승희·조대연·최지희·양은아·공보람·정지연. (2007). 「평생학습 지표개발 및 통계조사체제 수립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행정안전부. (2019).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 Gujarati, D. N. 저, 강달원, 김윤영, 제상영, 차경수, 홍찬식 역. (2013). 「예제를 통한 계량경제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Dave, R. H. (1973). *Lifelong Education and School Curriculum*. Hamburg: UIE.

Eccles, J. (1983). *Expectancies, values, and academic behaviors*. In J. T. Spence (ed), *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es: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pproaches*.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Field, J. (2009). Good for Your Soul? Adult Learning and Ment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8(2): 175-191.

Hulley, S. B., Cummings, S. R., Browner, W. S., Grady, D. G., & Newman, T. B. (2007). *Designing Clinical research*. NY: Wolters Kluwer.

Malek, J. A., Ahmad, A. R., Awang, M. M. & Alfitri. (2014).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elecentre and lifelong learning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A Malaysian experienc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3(3): 148-155.

Sabates, R. & Hammond, C. (2008). *The Impact of Lifelong Learning on Happiness and Well-being*. London: Centre for Research on the Wider Benefits of Learning.

Visvaldis, V., Ainhua, G. & Ralfs, P. (2013). Selecting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towns: the case of Valmiera municipality. *Procedia Computer Science*, 26: 21-32.

접수일(2019년 11월 27일)

수정일(2019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2019년 12월 23일)

## 〈국문초록〉

## 지역 간 평생교육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차이 분석

본 연구는 평생교육이 가지는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하여 지역 간 차이를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결과 해석을 통해 향후 농어촌지역의 평생교육 지원방향을 제언하여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역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인력 양성과 활용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을 기준값으로 하여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의 삶의 질 관련 변인 차이를 분석하는 다항로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로 볼 때, 농어촌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지원, 평생교육과 삶의 질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원,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유인책,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에 기여하는 지역인재 확보책과 더불어 개인특성 맞춤형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평생교육 참여자,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차이